

후지산의 ‘야마비라키’

7 월에 시작되는 후지산의 등산 시즌은 산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‘야마비라키 (개산)’ 의식으로 시작됩니다. 이 의식은 얼어붙고 위험했던 겨울의 끝을 축하하고 그 후 2 개월 동안 후지산을 등산하는 20,000 명 이상 등산객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

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 - 요시다구치 등산로 ‘오미치비라키’

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의 의식은 신사 뒤편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시작점에 있는 도리이에서 개최됩니다. 이때 개산 전날인 6 월 30 일 저녁에 열리는 ‘오미치비라키’(길을 연다는 뜻) 제사에서는 신관이 이끄는 일행이 배전 앞에 매달린 지노와(띠풀을 엮어서 만든 커다란 고리)를 빠져나오며 몸을 정화하고 등산로의 시작점인 도리이 앞으로 나가면, 괴력으로 알려진 신 다지카라오노미코토의 분장을 한 가구라(신에게 봉납하는 음악과 춤) 공연자가 무거운 나무 망치를 사용해 등산로의 도리이를 잠그듯이 쳐진 밧줄을 때려 끊어냅니다. 처음으로 신사의 최고위 신관인 구지(宮司)가 도리이를 통과하고 다른 신관과 후지코 순례자가 그 뒤를 따르면 새로운 시즌의 개산이 집행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다음날 아침에는 본전 앞에서도 의식이 행해집니다.

텐구가 산에서 내려오는 고미타케 신사

고고메(5 부 능선)에 있는 고미타케 신사의 제사는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에서 열리는 의식과 닮아 있지만, 고미타케 신사에서는 이 역할을 신이 아닌 산에 살면서 강력하고도 신비스러운 힘을 지니고 날개를 가진 생물 텐구로 분장한 2 명이 실시합니다. 고미타케 신사 주변은 텐구가 지배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텐구가 도리이 사이에 쳐진 밧줄을 거대한 도끼로 끊어냄으로써 후지산을 개산하는 것입니다.